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6월 17일(주일) 제1201호



사진은 올해 요셉공동체, 스리랑카 아웃리치.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열방 안에’

여름 해외 아웃리치 31개국, 186개 팀, 3,399명 참가
2000선교, 안전한 여름 아웃리치 위한 주의사항 거듭 당부

올 여름 온누리교회 해외 아웃리치는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열방 안에’를 주제로 진행된다. 31개국, 186개 팀, 3,399명(6월 14일 기준)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 여름 아웃리치 포문은 차세대사역 본부가 지난 5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아웃리치로 열었다. 대학청년부 허브공동체가 6월 25일 브라질 아웃리치로 그 바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 날(26일)에는 차세대 JDS Kids가 필리핀으로 아웃리

치를 간다. 성인공동체는 107개 팀 2,345명이 여름 해외 아웃리치를 간다. 온누리미션 이주민공동체 5개 팀도 여름 해외 아웃리치 대열에 합류한다. 성인공동체 국내 아웃리치 현황은 집계 중이다.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는 ‘Shout’ (시편 100:1)을 주제로 진행된다. 해외 52개 팀 769명, 국내 88개 팀 1,943명이 참가한다. 대학청년부 해외 아웃리치는 남아시아가 17개 팀 250명으로 가장 많고, 국내 아웃리치는 전라도 아웃리치

팀이 19개로 가장 많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27개 팀 285명, 국내 18개 팀 476명이 참가한다. 한편 2000선교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아웃리치 스쿨을 열고 아웃리치 출발 전 주의사항, 여권관리, 예방접종, 보안용어 사용, 현지법과 규범 준수, 아웃리치 이후 주의사항, 보고서작성, 후속모임 등 안전한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주의사항을 거듭 강조했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대학청년부 ‘FA 15기’ 참가자 모집

8월 2일까지 선착순 마감

대학청년부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인 FA(Frontier Agency) 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4일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Acts29비전빌리지

에서 합숙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을 마치면 9월 2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파송 예상국가는 네팔, 남아시아국, 동아시아B국이다. FA 15기 참가대상은 온누

리교회 등록세례 교인(6개월 이상)으로 35세 이하(84년생)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된다. 8월 2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05

(FA간사)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6월 19일 양천과 한강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14일 가정사역공동체까지 각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드린다(표 참조).

올해 온누리공동체 상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었다. 3월에는 ‘순장영성수련회’, ‘고난주간심야예배’, ‘팀 켈러 목사 초청집회’, 4월에는 ‘유기성 목사 영성일기세미나’ 등이 이어졌다. 5월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부모초청 맞춤형도전회 ‘행복드림콘서트’, ‘리브소나타 샷로로’ 등을 통해 이웃과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서 빙 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19일(화)	양천	비전홀	18:00
6월 19일(화)	한강	두란노홀	18:00
6월 22일(금)	찬양사역	시온홀	18:00
6월 23일(토)	광명	하안장로교회	14:00
6월 23일(토)	고양은평	진관교회	17:30
6월 24일(주일)	김포	온누리기독문화전시장	15:00
6월 24일(주일)	성북	온누리기독문화전시장	12:00
6월 25일(월)	중종로	두란노홀	18:00
6월 26일(화)	이수	두란노홀	18:00
6월 26일(화)	영등포구로	한동홀	18:00
6월 26일(화)	강촌	비전홀	18:00
6월 26일(화)	강서	시온홀	18:00
7월 1일(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18:00
7월 1일(주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7월 3일(화)	신용산	두란노홀	18:00
7월 3일(화)	관악금천	한동홀	18:00
7월 3일(화)	동대문중앙	비전홀	18:00
7월 3일(화)	서빙고	시온홀	18:00
7월 5일(목)	용산	두란노홀	18:00
7월 5일(목)	OCC	한동홀	18:00
7월 5일(목)	서대문	비전홀	18:00
7월 5일(목)	노원	상현교회	19:00
7월 6일(금)	동작	두란노홀	18:00
7월 6일(금)	특초	한동홀	18:00
7월 6일(금)	S브릿지	비전홀	18:00
7월 6일(금)	마포	시온홀	18:00
7월 10일(화)	이촌	시온홀	18:00
7월 12일(목)	성동광진	두란노홀	18:00
7월 12일(목)	여의도	한동홀	18:00
7월 14일(토)	가정사역	양지 온누리교회	10:00

양 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22일(금)	강남A	화평홀	19:00
6월 22일(금)	강남C	온유홀	19:00
6월 22일(금)	서초A	드림홀	19:30
6월 22일(금)	강남D	도곡 교육관	19:00
6월 24일(주일)	하모니	비전홀B	15:30
6월 24일(주일)	푸른누리	화평홀	15:40
6월 26일(화)	양재	화평홀	19:00
6월 27일(수)	경기A	화평홀	19:00
6월 28일(목)	분당A	드림홀	18:30
6월 29일(금)	서초B	화평홀	19:00
6월 29일(금)	강남B	온유홀	19:30
6월 29일(금)	서초C	드림홀	18:00
6월 30일(토)	서초D	드림홀	17:00
7월 3일(화)	분당B	화평홀	19:00
7월 4일(수)	도곡	화평홀	18:30
7월 6일(금)	POINT5	온유홀	20:00
7월 6일(금)	CMN	화평홀	19:00
7월 10일(화)	송파	화평홀	19:30

캠퍼스			
6월 22일(금)	부천 믿음	소풍 CGV	20:00
6월 22일(금)	부천 소망	두란노홀(자백 506호)	20:00
6월 22일(금)	부천 사랑	비전홀	19:00
6월 22일(금)	부천 화평	다락방별 종강	-
6월 28일(목)	부천 화평	소풍 CGV	20:00
7월 5일(목)	수원 서누리	비전홀	20:00
7월 5일(목)	수원 남누리	경찬홀	20:00
7월 6일(금)	수원 동누리	비전홀	20:00
7월 6일(금)~8월(일)	수원 북누리	전남안도 청산교회	-
6월 29일(금)	대전 연합	본당	19:30
6월 22일(금)	남양주 B	본당	20:00
6월 22일(금)	남양주 C(오남)	미정	미정
6월 22일(금)	남양주 C(진전)	미정	미정
6월 23일(토)	남양주 C(별내)	4층 화평홀	15:00
6월 23일(토)	남양주 A	본당	19:30
6월 24일(일)	평택 공동체	3층 본당	16:00
6월 29일(금)	인천 연합	재나생 8층	19:00
6월 30일(토)	강동 말씀	12층 본당	18:30
7월 5일(목)	강동 믿음	12층 본당	20:00
6월 22일(금)	양지 동누리	박모세홀	20:00
6월 22일(금)	양지 서누리	킬보름홀	20:00

기획_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한 여성들 4-5면

특집_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6면

르포_이스라엘 성지순례 8-9면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배우와 재소자’ 한편의 연극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배우 유혜리 집사(신용산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유 집사는 새사람사역팀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재소자들이 감동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출소 후에 그녀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고백한 재소자도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배우 유혜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일대일 양육하는 유혜리 집사(MBC 드라마 ‘황금주머니’의 출연 장면).

유혜리 집사는 참으로 재미있고 호탕한 사람이다. 대화를 거듭할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다. 신앙도 으뜸이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예수를 참 많이 닮은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배우 유혜리 집사의 본명은 최수연이다. 그녀가 예명을 쓴 이유가 있다. 집안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예계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저희 집안은 유교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제사를 많이 지낼 정도로요. 특히 아버지가 딸에게는 무척이나 엄한 분이셨어요.”

유 집사의 아버지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에게 늘 저녁밥으로 뭘 먹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상냥하고 다정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만난 사람이나 장소가 예측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딸 단속을 엄하게 하셨어요.”

유난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한 그녀가 연예인이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하루는 선배 언니가 촬영이 있는데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따라갔다가 한 관계자의 눈에 띄었어요. 예쁜 건 알아가지고(웃음). 모델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 첫 촬영을 했다. 생각지

도 못한 거액의 출연료까지 받았다. 아버지가 무섭고 마음에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렇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연예계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영화와 드라마, 연극에서 활약했고 대중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도 인정받았다.

예수 믿고, 양육자로 성장하기까지

참으로 화려하게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다. 호주머니가 영성이라 했던가. 화려하게만 살던 그녀에게 불어 닥친 재정 위기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어머니께서 제 수입을 관리를 하셨는데 그만 사기를 당했어요. 그동안 번 돈을 몽땅 날렸지 뭐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큰 위기를 겪고 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사기 당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연락을 거부했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겁이 났던 모양이다. IMF 시절에도 화려하게 살았던 그녀였기에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교회 다니는 지인들이 그녀를 전도하려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3년 동안이나 버티고 또 버티다 너무 외로워서 남몰래 동네 교회에 갔다.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회에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밀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그로부터 5년 뒤다.

“장로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초신자였어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성경공부를 가르쳐 줄 멘토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멘토님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권사님을 멘토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셨어요.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말이죠.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하고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섭렵하고, 예수제자훈련(DTS)을 받을 정도로 뜨거워졌어요.”

그녀도 멘토에게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양육자가 되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섬기고 가르쳤다.

“동반자와 함께 밥 먹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양육해주신 멘토님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지극정성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더니 동반자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건 당연했다. 교회에 “유혜리 집사를 만나면 회복되고 부흥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는 비전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양육했어요. 눈만 뜨면 책가방 두 개 들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탁월한 양육자라는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다. 타 교회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는 시샘의 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멘토님과 상의 끝에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진통을 겪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선물

을 주셨다. 그녀를 통해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다.

“당시 실의에 빠져있던 오빠에게 약간의 돈과 함께 성경책을 건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오빠한테 ‘어디로 가면 돼?’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날부로 오빠를 교회에 등록시키고, 일대일 제자양육도 신청했어요.”

지금 그녀의 오빠는 순장으로 선길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다. 그녀를 통해 집안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내 양을 먹여라”

올해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기도하는데 ‘내 양을 먹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새사람사역팀에서 ‘재소자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명색이 여배우인데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만나서 일대일 제자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꺼려지진 않았을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대일 제자양육 하다 보면 사정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많은데 재소자들과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녀는 재소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 오히려 재소자들이 그녀를 보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꾸미지도 않고 간다. 그렇다고 그 미모가 빛나지 않을 리가 없지만 말이다.

“재소자들이 제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 같아요. 한 청년이 제게 ‘출소하면 엄마랑 같이 온누리교회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데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 교도소 안에 갇힌 재소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목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일대일 양육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소외된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새사람사역팀에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문의: 백종신 팀장 010-3625-0266
최주관 담당장로 010-5264-1191



주일강단



이상준 목사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젊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1~2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분노 뿐만 아니라 기운 자체가 가라앉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 원정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과도 없었고, 고국에는 기다리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480년입니다. 한 3년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정예 부대, 노예 병사들까지 약 1천명과 최후의 1인이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군이 옹성한 스파르타 군대를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 북부를 차지하고, 아크로폴리스 신전 등을 불태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살라미’라는 큰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상전에서 승리한 페르시아군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는 살라미로 가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살라미 앞바다는 매우 좁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페르시아 해군 1,200척이 진격했는데 살라미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 400척을 잃고, 절반 규모가 그리스군과 맞닥뜨렸는데 참패합니다. 그리스군 전사자는 120명, 페르시아군은 6천명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4대 해전으로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에게는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페르시아에게는 엄청난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포기를 못합니다. 재차 침공을 합니다. 1년 뒤 남아있던 지상군들이 ‘필라테리아’라는 지역에서 충돌합니다. 그리스군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군이 진격했는데 강력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연합군에게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같은 시기 이오니아 반도 ‘미칼레’라는 곳에 페르시아 해군이 남아있었는데 그리스 해군을 피해 도망가다 패배하고 맙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480년 즈음에 발발한 전쟁에서 모두 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수산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위로를 얻을 곳은 아내뿐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폐위 됐습니다. 당시 왕의 칙령은 법적으로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수심이 깊은 것입니다. 그때 왕의 곁에서 섬기는 젊은이들이 “왕이시여, 슬퍼만 하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왕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입니다. 고관들과 장수들로 넘쳐나던 궁궐이 이제는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개와 하닷사(에스더)

모르드개의 부모 시대에 역사가 다시 한 번 요동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니다.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끝까지 버텨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모르드개와 하닷사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개는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이 신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닷사’라는 이름은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운 도금양나무(myrtle)를 뜻합니다. 하닷사가 페르시아에서 지내면서 얻은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사촌입니다. 하닷사는 이방 나라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방 민족으로 살아갔지만 모르드개 덕분에 구김살 없이 잘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영혼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빛어지는 우리의 영혼은 정금과 같습니다.

“हे개는 에스더가 마음에 속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9절 a).

헤개가 왜 에스더에게 잘해주었을까요? 에스더의 호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그것입니다. 에스더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인이 에스더 뿐이었겠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전국은 전 세계와 같았습니다. 왕비 선발 과정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것이고, 인생의 한순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명확한 신앙고백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

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습니다”(10~11절).

국가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너무나 실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신하들이 출신성분을 따지지 않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에스더는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하사한 특별한 음식을 그대로 받아먹었습니다. 이방인 왕과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공개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공개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고백입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문화적 포용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페르시아의 궁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강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기스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 부친의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이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한때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기백이 아주 뛰어났던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창 49:27).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인한 정신을 갖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를 보면 그런 베냐민 지파의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모르드개와 하닷사가 신분을 감춘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심성이 지나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은 에스더서의 전개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비록 그들이 신분을 감췄지만 그 중심에는 명확한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 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력한 신앙적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기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둘 중 하나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마주하기 힘들어서 기도원으로 가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려면 강력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야 합니다. 모르드개와 하닷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꾸어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12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구하든, 장신구를 구하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은 후궁을 관리하는 사야스가스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왕을 한번 만나고 나면 비빈이 됩니다. 비빈이 되는 순간 정치적인 힘과 특혜가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개가 정해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 니다”(15절).

에스더는 특별대우를 받았지만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절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신앙은 분명하지만 시대에 맞춰 갈 줄 아는 감각도 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로 자신을 가꿀 줄도 알았지만 치장한다고 인생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왕이 수많은 여자 중에서 에스더의 가치를 발견하고 왕비로 세웁니다.

“헤개는 에스더가 마음에 속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9절).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스더가 헤개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빛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긴장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동 다투이 왕이 되었습니다. 포로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소수 민족 출신의 소녀 하닷사(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배역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여성들

이 땅에 기독교 정신 뿌리내리게 한 여성들
남자현 지사, 김마리아 선생, 김성무 전도사

지난 3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은 많은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여성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은 수많은 여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막 오르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이 기대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리아행진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선각자들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고자 한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에스더의 고백이다. 그녀에게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세로 왕에게 나아가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당시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왕비인 에스더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에스더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인 아빈 왕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셨다.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다. 납달리는 즉시 1만 명의 병사를 일으켜 아빈의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홀다도 민족을 구한 여성이다. 그녀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도 예언했다. 신앙을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계획을 알리시고, 백성들을 구원 하셨다. 나라와 민족을 살린 믿음의 여인들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이 많다.

순국신앙의 상징 ‘여걸 남자현 지사’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 맹렬하게 맞선 여인이 있었다. 무장 독립운동가 남자현 지사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



남자현 지사(위)와 보석으로 출소한 남자현 지사를 돌보고 있는 아들과 손자(아래).

의 주인공인 안옥윤(전지현 분)의 모델이다. 그녀는 한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남자현 지사의 일생은 매우 험난했다. 처음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다. 남자현은 1872년 12월 7일 경상북도 영양군 일대 유학자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당시 여성으로서서는 드물게 한문까지 배웠다. 19살이 되던 해 안동군 일직면에 살고 있던 한 유학자의 자녀 김영주와 혼례를

한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에 참여하다 죽는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컸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린 자녀와 나이든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다. 언젠가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할 날만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다.

그녀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남자현은 서울 남대문에 살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그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 당시 그녀의 나이 47세였다. 누구보다 앞장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녀의 독립만세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3.1운동이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만주로 망명한다. 그곳에서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무장독립운동단체 ‘서로군정서’에 들어가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한다. 국내에 머물고 있던 아들도 만주로 불러들여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시켰다. 남자현은 이 무렵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

남 지사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만주에서 만난 전도인의 영향이 크다. 전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독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남자현 지사는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아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만주 일대에 교회 열두 곳을 세우기도 했다. 그녀의 독립정신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열망 그 자체였다. 독립정신과 기독교 신앙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다.

남 지사는 기독교 신앙에 기대어 독립운동

을 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1922년 3월 만주에 있던 독립단체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 사이에 전투까지 벌어졌다. 상하이 임시정부조차 중재할 수 없었다. 이를 애 통하게 여기던 남자현 지사는 산중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 그리고 단결과 단합을 호소하는 형서를 써서 독립군들에게 보냈다. 그녀가 쓴 형서가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일을 계기로 남자현 지사는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 그녀는 통의부(만주에 조직된 항일독립군 연합단체) 총장 김동삼, 오동진, 현익철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와중에 전도활동도 빼놓지 않았다.

1933년 남자현 지사는 일생 마지막 투쟁을 준비했다. 만주국 1주년 기념식에서 부모 전 권대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선인 밀정의 밀고로 일본 형사에게 체포돼 잔혹한 고문을 당한다. 남 지사는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하면서까지 저항하다 쇠약해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얼마 후 독립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여걸의 일생에 마침표를 찍는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녀의 순국신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증손자가 현재 C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김마리아 선생’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바친 김마리아 선생의 고백이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김마리아 선생이 태어난 곳은 황해도 장연군 소래인데 이곳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교인이 된 서상륜과 서경조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곳이다. 김마리아의 아버지 김윤방은 그때 예수를 처음 믿었다.

김마리아는 1896년 소래교회에서 설립한 소



김마리아(좌), 김마리아와 함께 있는 안창호와 차경신(왼쪽부터).



교육과 사회운동에 힘쓴 김성무 전도사.

래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 즈음 아버지 김윤방이 사망한다. 뒤이어 1904년 어머니 김몽은 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졸지에 고아가 된 김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서울 사는 삼촌 집에 맡겨진다. 그녀는 서울에 살면서 정신여학교를 다녔다. 그녀는 삼촌 김필순과 그의 지인인 안창호, 김규식, 서병호 등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

1910년 6월 16일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그녀는 애국심이 가득한 민족주의 교사였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밤에도 잠도 자지 않고 기울어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학생들에게는 민족의식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한 진정한 교육자였다. 3년 동안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모교인 정신여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정신여학교 교장이었던 루이스 선교사는 김마리아의 민족의식을 높게 평가하고 그녀가 일본 유학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김마리아는 도쿄 한인 YMCA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운동세력과 접촉하면서 민족운동가로 성장한다.

1919년 2월 8일 한국 학생 400여 명이 도쿄 YMCA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김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도망칠 틈도 없이 체포당했지만 다행히 이들이 지나지 않아 풀려났다. 김마리아는 일본에서의 독립선언 열기를 국내에도 전하고 싶었다. ‘도쿄 28 독립선언서’를 국내 민족 운동가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국으로 왔다. 2월 15일 일본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다음 곧바로 황해도 봉산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오자마자 밀려 선교사의 사택을 찾아갔다. 당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일제의 눈을 피해 밀려 선교사의 사택에 피신해 있었다. 일본 경찰들이 밀려 선교사의 사택으로 들이닥쳤고 그곳에 있던 김마리아는 ‘보안법 위반’과 ‘만세시위의 배후자’라는 죄명을 받아 또 다시 투옥되었다. 감옥에는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 큰 병을 얻었다. 그녀가 투옥되자 정신여학교 교사들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혈성애국부인회’가 만들어졌다. 상하이 임시정부 후원을 위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도 조직됐다. 다

죽어가는 그녀는 석방된 다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회복되었다. 이후 김마리아는 여러 개의 여성단체들이 단결해서 만든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임시정부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독립운동을 도왔다. 한 달 사이 군자금 6천 원을 모아 상하이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회원 오현주의 배신으로 김마리아를 포함한 핵심 간부 50여 명이 감옥에 가게 됐다. 김마리아에게는 누구보다 지독한 고문과 형벌이 가해졌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병세가 악화됐다. 보다 못한 스코필드 선교사가 손을 써 병보석으로 그녀를 석방시켰다. 그런데 치료 받는 동안에도 재판이 지속됐고 결국 3년형을 받았다. 뽀족한 대안이 없던 김마리아는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망명했다. 중국에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이후 건너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도 ‘재미대한민국부인회’를 조직해서 민족운동을 이어나갔다.

1933년 그녀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 원산 마르다월승여자신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르쳤다.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독립운동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마리아 선생은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일평생을 바쳤다. 김마리아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기독교 사회운동 선구자 ‘김성무 전도사’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했던 여성 선각자가 또 있다. 거리의 여전도사로 알려진 김성무 전도사다. 김 전도사는 1891년 3월 24일 평양북도 용천에서 출생했다.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14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주일이 아닌데 교인들이 교회마당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오빠 김성겸이 연설을 하고 있었다. 많은 교인들이 오빠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연설의 내용은 ‘을사늑약’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장면이 어린 김성무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비참함이 그녀의 어린 가

슴을 짓눌렀다. 그때부터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김성무는 아버지가 추천한 신천 보성여학교를 졸업하고 신천 명신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안준 장로의 아들 안병균과 결혼했다. 남편 안병균 역시 독립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3.1운동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재령동부교회 김승용 목사, 교인 김말봉과 함께 ‘재령 만세시위 운동’을 모의했다. 1919년 3월 9일 주일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만세합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시작된 만세합성은 황해도 재령읍 전체 만세시위로 확산됐다. 그러자 일본 헌병대가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됐는데 김성무도 그중 한 명이였다. 당시 그녀는 만삭이었다.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은 모욕적인 언어와 폭력을 휘둘렀다. 김성무 전도사는 22일 만에 석방되었다. 그녀의 남편도 일본 경찰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그들 부부는 어쩔 수 없어 평안북도 선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만세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독립을 향한 김성무 전도사의 의지도 커졌다. 김성무는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1920년 3월 1일 금요일 구역예배를 마치고 김성무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성분들은 다 나가 주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여성분만 이곳에 남아주세요.”

김성무 전도사는 남은 교인들에게 시위의 목적을 설명하고 앞장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인들이 따라서 찬양을 부르며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여인들의 행렬은 선천북교회에서 시내 한복판까지 이어졌다. 남성들도 만세를 부르며 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은 그 행렬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 행렬을 앞장섰던 김성무 전도사는 또 다시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서 6개월 간 복역했다. 수감생활을 마친 뒤에도 김성무 전도사는 쉴 틈도 없이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선천여자기독교청년회(YWCA)를 창설해서 여성교육에 앞장섰다. 명신유치원도 설립해서 보모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성무 전도사는 옥

살이를 하면서 조선인 교도관이 일본 교도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많이 봤다. 그때부터 민족교육과 여성교육에도 헌신해야겠다고 결단했다. 그녀가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YWCA모임에서 외쳤던 말을 들어 보면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국권을 잃은 백성이다. 배우지도 못한 말을 못한다 하여 발로 차이고 저녁과 아침을 굶기며 개, 돼지 취급을 받아야 하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나? 이제부터 여자 교육에 전념하여 나라를 지키는 여성을 기르자.”

김성무 전도사는 남편 안병균과 함께 기독교 사회운동을 했다. 그 일이 무척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40년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성무 전도사는 평북노회 성경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제의 종교통제로 목회자로 제대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일제와 협력하는 분위기였다. 민족의식으로 가득 찬 그녀가 더 이상 설 곳이 없었다.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광복의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바람대로 광복은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활동 통제가 더욱 혹독해졌다. 결국 김성무 전도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48년 김성무 전도사는 남산에 있던 장로회신학교에서 또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부산 부전교회 여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다. 김성무 전도사는 목회뿐 아니라 교육봉사에도 헌신했다. 1954년 대한기독교계명회 순회총무로 섬기면서 문맹퇴치 강연을 다녔다. 여성과 아동교육에도 힘썼다. 김성무 전도사로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운동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2년에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회장직을 맡아 절제운동을 펼쳤다. 이때부터 순결, 평화, 금주, 금연, 국산품애용, 축첩(둘째 부인을 거느리는 것)반대, 근검, 절약 등의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70대였다. 나이가 들어도 민족과 교회를 향한 열정은 결코 늙지 않았던 것이다.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온 누리로 떠나는 게 온누리교회 정신”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에서 청년사역자 백정석 목사로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강원도 철원군 도하중대 도하은혜교회와 경기도 포천시 차의과학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백정석 목사다. 백 목사는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 출신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청년사역에 헌신한 백정석 목사.

누군가 백정석 목사에게 영적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는 단연코 “온누리교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온누리교회에 대한 사랑이 크고 깊다. 백 목사는 온누리교회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를 만큼 정겹고, 한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곳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교회였지만 떠났다. 그것이 온누리교회 정신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백 목사는 군부대와 대학에서 청년사역을 하고 있다. 철원에 있는 도하중대 도하은혜교회와 포천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장병들과 대학생들을 양육해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다.

故 김사무엘 선교사와 함께 간 이라크에서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까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은퇴할 무렵 선교지에서 경영학 교수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백정석 목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였다. 1998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등록해서 선교, 말씀,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훈련 받았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태동할 때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특히 선교에 관심이 많았다. 2003년에는 김사무엘 선교사와 이라크 1차 정탐 아웃리치를 가기도 했다. 바로 그곳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당시 저는 영상촬영을 했었는데 이라크는 정말 참담했어요. 정탐을 하는데 이슬람 지도자 이맘은 많았는데 목사는 없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Yes!’ 라고 대답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목회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라크 정탐을 다녀온 이듬해 김사무엘 선교사가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소천했다. 그 안타까운 이별이 목회에 대한 소망을 더 뜨겁게 불태웠다.

“정말 슬펐어요. ‘저렇게 일찍 가시면 어쩌나. 누군가는 이어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일을 저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목회에 대한 소망은 생겼지만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2009년

무렵 ‘BEE Korea’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성경을 가르치다 신학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상석에서 내려오기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를 섬길지 한참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한 지인에게 군교회인 도하은혜교회를 추천 받았다. 당시 백 목사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도하은혜교회까지 3시간이나 걸리는데다가 사례조차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군교회에는 늘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군대에 교회가 1천개 정도 있는데 군종 목사는 27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00여 개의 교회는 민간인 군선교사들이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부대의 교회는 군선교사들조차 연결돼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제가 번역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장 주제가 ‘상석에서 내려오기’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군교회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도하은혜교회 첫인상은 열악했다. 곰팡이가 득한 창고 같았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십자가도 빠뜨려져 있었다. 백 목사는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군선교팀이 아웃리치를 오면서 조금씩 교회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십자가도 바로 세워지고, 스피커도 생겼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도 도하은혜교회로 여러 차례 아웃리치를 와서 도움을 줬다.

지금 도하은혜교회에서는 매주 장병 40여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도하중대 병사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백 목사가 장병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예수님이다. 도하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21개월 동안 예수님을 알고 나가는 것이 백 목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신병들에게는 4주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 ‘만남 편’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군대가 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옛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해도 장병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종교 활동 시간에 생활관에서 쉬어도 되거든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군교회는 청년전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백 목사도 매년 한 두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21개월 동안 양육한 장병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는 돈만 밝히고 섬김만 요구하는 곳인 줄 알아요. 저는 그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백 목사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교목으로도 섬기고 있다. 주일 오전에도 하은혜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오에 차의과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린다.

“처음에는 차의과학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를 했어요. 주일날 장병들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의과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도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교목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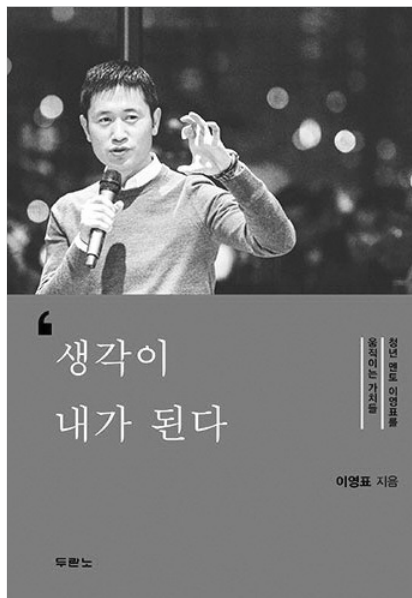
백 목사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온누리교회에서 갖고 닦은 대로 평신도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지원하고, 성장한 성도들이 온 누리로 떠나는 게 온누리교회 정신이잖아요?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은 “배울 만큼 배웠거나 기반을 다질 만큼 다졌으면 떠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저 또한 언제든 다음 사역지로 파송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저도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두란노 신간



〈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저 | 두란노 | 13,000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이영표 집사가 신간 〈생각이 내가 된다〉를 펴냈다. 그가 청년 멘토로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답았다.

이 책에서 이영표 집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에서 바른 가치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다수의 생각이 사회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과거에는 10명이 사는 마을에서 1명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됐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한 명을 가만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9명이 죄를 짓게 되면서 죄를 짓지 않는 1명의 생각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집사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으로부터 이 시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신간을 썼다.

그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적 가치관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됐다. 그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바로 그 지혜’가 〈생각이 내가 된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솔하면서도 솔직한 이영표 집사의 고백이 많은 청년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시절 실패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경험들을 생생하게 꺼내놓으면서 “자신과 똑같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아름다운 청년기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그의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이 집사는 아름다운 청년 시절을 보내기 위

해서는 아홉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노력은 정직이다. 노력에는 결코 거짓이 없다. 노력한 만큼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노력은 선택이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함께 놓여 있다. 공부해야 하는데 놀고 싶고, 훈련해야 하는데 쉬고 싶다. 우리가 만약 이 두 가지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면 평생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셋째, 노력은 질량의 법칙이다. 물체의 질량에 따라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만큼 능력이 향상된다.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노력은 고통에 대한 내성을 길러준다.

넷째, 노력은 시간이다. 오늘의 발전은 지난 날의 노력한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집사는 오늘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 노력하다 보면 전보다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노력은 겸손이다. 노력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전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여섯째, 노력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자신감을 갖자”는 자기 다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온다. 하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 노력 자체가 큰 기쁨과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일곱째, 노력은 점이다. 노력은 점을 선으로 만드는 일이다. 종이에 점 하나만 있으면 방향을 예측할 수 없지만 매일 노력이라는 점을 찍다보면 곧 선이 된다.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여덟째, 노력은 얇아진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아는데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삶은 많은 것을 알게 한다.

아홉째,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이영표 집사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노력하는 자세가 곧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각이 내가 된다〉를 펴는 순간 이영표 집사의 삶과 신앙도 만날 수 있다. 이영표 집사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 ‘SOCKS UP’을 운영하고 있고,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불만한 공연 뮤지컬 ‘루카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 같은 뮤지컬 한 편이 막 오른다. 창작 뮤지컬 ‘루카스’가 바로 그것이다. 뮤지컬 루카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작품이다.

뮤지컬 루카스는 이번에 처음 막 오르는 작품이 아니다. 2006년 ‘문화행동 아트리’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2008년에도 막 올랐던 작품이다.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인 셈이다. 초연 당시부터 수많은 관객들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2008년 공연은 전 세계에서 300회가 넘게 진행됐고, 1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밝고 따뜻한 웃음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뮤지컬 루카스는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헨리 나우웨이 인생 말년에 만난 장애인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김남주 감독이 각색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그 감동의 물결이 우리 곁을 다시 찾아왔다.

“루카스, 내 말을 잘 들어봐”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은 현우는 심신의 위로를 얻기 위해 캐나다 휴양지를 찾는다. 친구의 말만 믿고 찾아간 휴양지는 다름 아닌 장애인 공동

체 ‘데이브레이크’였다. 현우는 친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화가 났다. 거기다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까지 있어서 곧장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부부 앤디와 줄리가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돕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앤디와 줄리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루카스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루카스는 뇌 기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17일을 더 살았다. 루카스를 통해서 현우와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예고된 불행이 찾아온다. 죽음을 앞둔 루카스에게 아버지 앤디가 마지막 목소리로 속삭인다.

“루카스, 내 말을 잘 들어봐.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어.”

이 대사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죄로 인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다.

뮤지컬 루카스는 ‘아티스컴퍼니’에서 제작했다. 극본은 ‘참으로 소중한 나’, ‘비판으로부터 자유’ 등을 쓴 김수경 작가가, 음악은 ‘추노’, ‘밥상 차리는 남자’ 등 다양한 TV 드라마에 참여한 작곡가 김중천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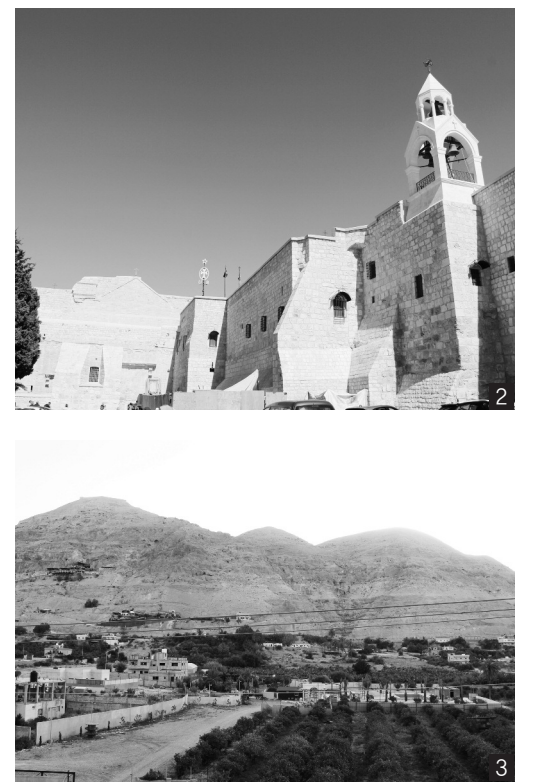
뮤지컬 루카스는 대학로 작은극장 광야에서 7월 28일까지 이어진다.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및 공휴일 오후 2시와 6시에 막 오른다. 주일에는 공연이 없다. 티켓은 2만 2천원이다.

문의: 02-741-9182

/ 르포 /
이스라엘 성지순례

KIB(한·이성경연구소)와 친구들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예수가 홀로 가신 그 길 위에 섰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을 묵도하는 순례를 했다. 그 길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직접 찾아오셔서 손잡아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 은혜가 놀라워 또 한번 울었다. 그 눈물은 생명의 눈물, 사랑의 눈물, 회복의 눈물, 영원한 약속의 눈물이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걷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 큰 사랑에 큰 감동을 받는 모습이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1.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전경.
2. 예수탄생기념교회.
3.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유혹산.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성분묘교회 2층 십자가 달린 예수님 모형.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미 5:2).

예수님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이 우리의 첫 순례지였다.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방문한 ‘예수탄생기념교회’는 예수 탄생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탄생기념교회 출입문은 폭 80cm 높이 120cm에 불과하다. 이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재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직분과 인종에 상관 없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허리를 전복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겸손의 문을 지나면 한 가운데 제단이 있다. 그 제단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예수가 태어나신 동굴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내부 공사 중이어서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다.

여리고 '유혹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성경 속 바로 그 장소’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마 4:1-2).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유혹산’이다. 여리고 옛 도시 뒤편에서 깎아지른 듯 솟아 있는 유혹산을 바라봤다. 유혹산은 벌거숭이산이다. 토양이 황폐해서 나무와 풀이 거의 살지 못한다. 또한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몹시 후덥지근하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 정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조건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곳에 서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다보니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 때문입니다”(히 4:15).

삭개오가 오른 큰 뽕나무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와 모양이 많이 다

르다. 사실 삭개오가 오른 나무는 히브리어로 ‘쉬크마’, 영어로 ‘sycamore tree’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돌무화과나무’다.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으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회개하게 만드는 곳이다.

예수님의 기도처 '감람산'과 '올리브산'

그 이름도 유명한 감람산에 올랐다. 감람산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다보면 만날 수 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눅 19:38) 바로 이 찬양이 울려 퍼졌던 장소가 감람산이다. 감람산의 정확한 표기는 ‘올리브산(Olive mt)’이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올리브나무와 가장 유사한 나무가 감람나무여서 감람산으로 번역한 것이다.

올리브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눅 19:44) 것을 기념해 세운 교회가 있다. ‘눈물교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눅 11:1-4) 것을 기념하며 세운 ‘주기도문교회’도 있다. 이외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눈물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유명한

‘겔세마네 동산’과 이를 기념하는 ‘만국교회’도 올리브산에 있다. 올리브산은 그 어느 장소보다 예수님의 눈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 올리브산 정상에서 겔세마네 동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 26:39).

올리브산 정상에서 서면 이스라엘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곳 정중앙에 무슬림 사원인 ‘황금돔’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르짖기 가장 좋은 자리에 무슬림 사원이 딱히 서있다는 사실이 통곡할 만큼 안타깝다. 황금돔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어두운’ 혹은 ‘혼탁한’이라는 뜻을 가진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그 왼쪽으로

는 다윗 성의 터가 있다. 또한 ‘올드시티 성벽’의 8개 문 중에서 유일하게 닫혀있는 ‘황금문’도 있다. 이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가 이 황금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렐 44:1-2)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황금문이 열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올리브산에 오르면 다윗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생생한 역사를 눈과 마음에 그려보는데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다.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끌고

나 언덕까지 오르는 길이 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라고 한다.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다.

고난의 길은 14코스로 이어지는데 코스마다 로마식 숫자가 표기된 안내판이 있다. 고난의 길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성의 스테반몬에서 약 100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곳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내린(마 27:26) 십자가의 길의 첫 번째 지점이다. 그 오른쪽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 신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길 지도가 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마 27:27-31) 여기서 바로 고난의 길 두 번째 지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점을 합쳐서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한다.

안토니우스 요새에서부터는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이 길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쓰러지셨는지 이곳이 고난의 길 세 번째 지점이다. 예수님이 내리막길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은 살점이 떨어지도록 채찍을 맞고, 약 100kg이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암시한다.

쓰러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상봉한 곳이 고난의 길 네 번째 지점이다. 묘자의 상봉은 그리 길지 않았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지점에서 약 5m 정도 더 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골목이 나온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또 다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

도록 한다(마 27:32). 이곳이 고난의 길 다섯 번째 지점이다.

예수님이 다시 힘을 내어 끌고나 언덕을 향해 가셨다. 그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뛰어나와 수건으로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 얼굴을 닦았다는 설이 있다. 이곳이 고난의 길 여섯 번째 지점이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또 다시 쓰러지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 고난의 길 일곱 번째 지점이다. 이곳은 작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서쪽 문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그 문을 나가면 골고다 언덕이 있었다. 그 문 바로 왼쪽에 있는 골목길로 올라가면 고난의 길 여덟 번째 지점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온다. 이곳이 바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눅 23:28).

여덟 번째 표지판에서 다시 사거리로 나가야 한다. 여덟 번째 표지판에서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오른쪽 골목이 나오면 또 하나의 골목이 나온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그곳이 고난의 길 아홉 번째 지점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성분묘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re)’의 지붕이 보인다. 성분묘교회를 가려면 고난의 길 아홉 번째 지점에서 되돌아 나가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

성분묘교회로 가는 길에 사거리가 또 나오는데 이곳이 유일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노라니 찬양 ‘갈보리산 위에’가 절로 나온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뚫겠네-”

성분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언덕 자리에 위치해 있다. 바로 그곳에서 열 번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19:23-24), 열한 번째 십자가에 못 박고, 열두 번째 십자가를 세워 매달았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네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내려서 열한 곳(마 27:59)이 열세 번째 지점이다. 열네 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무덤(마 27:60)이다. 열 번째부터 열네 번째 지점에 남은 예수님의 흔적은 성분묘교회에 고스란히 전지되어 있다. 다만 예수님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고난의 길 표지판은 열네 번째 코스가 끝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다섯 번째 표지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열다섯 번째 코스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다가 승천하셨다(눅 24:50-53). 이를 기념하는 ‘예수승천기념 건물’이 올리브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새겨 보면 정말 좋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선고 받으신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로 쓰러지신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오르막길.

탈북민 모녀 간이식 수술 성공

사회선교부, “기도와 후원 덕분에 빠르게 회복 중”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저의 모녀를 위해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탈북민 모녀가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근 10년 동안 옷을 입지 않았던 모녀가 웃음을 되찾았다.

은혜(가명) 자매는 2009년 탈북과정에서 어머니와 생이별 했다. 어머니는 미국으로 탈북했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모녀는 7년 동안이나 생사도 모른 채 살다가 극적으로 상봉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에 온 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어머니의 간을 이식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재정이 부족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이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성도들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지난달 18일 성공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이 모녀는 9월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유주석 팀장(하나원 사역팀)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병원까지 찾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상봉하는 모녀.

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면서 “그 사랑 덕분에 모녀의 심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감사인사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꿈에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딸을 찾아 중국을 살살이 뒤졌습니다. 1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 간이야 얼마든지 떼어 줄 수 있는데 그 과정이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모녀를 도와

주셨습니다.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9월까지 우리 모녀는 한 이불을 덮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녀도 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은혜 자매 어머니

“예수를 기억하고, 감동하며, 살라!”

군선교팀, 육군사관학교 수요일예배 섬겨

군선교팀이 육군사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드린 수요일예배를 섬겼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육군사관학교 교회에서 드린 수요일예배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80명과 가족, 성도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요일예배는 찬양, 온누리교회 사랑찬버의 연주, 김호성 집사(군선교팀장) 기도, 광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설교, CCM 사역자 ‘애드’의 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랑찬버의 아름다

운 연주가 예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광상학 목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제로 설교했다. 광 목사는 예배참석자들에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에게 감동하며, 예수처럼 살기를 결단하라”고 권면했다.

전유정 생도는 “사랑찬버의 연주에 크게 감동했다”면서 “예배를 섬겨준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

BEE Korea가 주관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오후 3시 45분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희에서 열린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기술’, ‘진밀한 부부 관계를 위한 성품훈련’ 등을 주제로 정대서 장로와 이해정 권사 부부가 인도한다.

문의: 02-822-9480

해외 아웃리치 스쿨 종강

안전 및 영적 유의사항, 보안 교육 실시

“준비한 만큼 안전하게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다”

2000선교본부가 ‘2018년 해외 아웃리치 스쿨’에서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한 메시지다. 지난 6월 5일과 12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각각 열린 해외 아웃리치 스쿨에는 성인, 청년, 차세대 공동체 아웃리치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 아웃리치 스쿨에서는 안전, 영적 유의사항, 아웃리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여권 관리, 현지법과 규범 준수, 늘 기

도로 무장할 것, 아웃리치 전후로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공동체와 파송본부와 아웃리치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0선교본부는 기도 어플리케이션 ‘기도온(Pray On)’을 출시했다. 기도온에서는 대륙별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선교사가 전도하거나 양육 중인 한 영혼을 위한 기도제목, 질병 중인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제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2018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6월 19일 사전설명회 개최

2018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사전설명회가 6월 19일 오후 7시 하이그라운드(성동구 독성로1가길 5)에서 열린다. 어!벤처스 사전설명회에서는 대회 소개 및 작년도 수상팀 간증, 전문멘토단 그룹별 토크 등이 진행된다.

2018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FWIA(Faith&Work Institute Asia, 김윤희 대표), CCF(Christian CEO Forum, 회장 이남식 장로)가 공동주관하고,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후원한다.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국내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설립 3년 미만의 청년벤처(비영리 법인 지원 가능, 팀원 중 1명이 기독교인이어야 함)이다. 최종 발표회(11월 10

일) 전까지 법인 설립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과 시니어의 융합팀의 경우에는 우선선발 및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청년벤처포럼 블로그(<http://blog.naver.com/aventure2016>)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8월 27일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9월과 10월에는 전문멘토의 멘토링이 이어진다. 11월 10일 최종결선대회를 치른다.

2018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에서 수상내역은 그랑프리(1개팀), 최우수상(1개팀), 우수상(1개팀)이다.

문의: venture4world@gmail.com
02-499-41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열방과 함께하는 온누리교회!

이주민 위한 행사 개최 및 물품 모집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오는 23일(토) ‘일일요리교실’을 개최한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안산M센터 만나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가정, 다문화 가정이다. 이날 양재 여성사역 드보라·마리아 다락방은 ‘삼계탕 요리법’을 이주민들에게 가르쳐 줄 예정이다.

어제(16일)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토요일 다문화교실’ 2학기가 개강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다문화교실에서는 바리스타, 영어, 한국어, 댄스, 난타, 탁구, 리코더 등의 강자가 진행된다.

평택M센터 한국어 교실에서는 에어컨을 구하고 있다. 에어컨은 이주민 15~20여 명이 매주 주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평택M센터 010-6343-7588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북콘서트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

트홀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김진혁 교수(벧불트리니티 신학교)다.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37

■ 결혼예비학교 스태프 간증



/ 이주호 성도(길음교회)

거룩한 사역 귀한 부르심

결혼예비학교는 ‘준비하는 결혼이 아름답다’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됐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어져온 결혼예비학교가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 갈렙공동체에서 만나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자녀 1남 1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결혼 10년차 평범한 크리스천 부부다.

나는 결혼에 대한 설렘을 안고 매주 퇴근 후에 결혼예비학교에 참석했었다.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결혼준비를 위한 ‘부부의 대화와 소통’, ‘부부의 성’, ‘부부의 재정관리’ 등의 강의를 들었다. 결혼예비학교는 그동안 결혼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부부의 십계명 작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했다.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섭리임을 확신하는 시간이었다. ‘성결서약식’을 통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당시 결혼예비학교 간사님에게 예비부부들을 섬기는 스태프로 섬겨줄 것을 제안 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

각해서 헌신했다. 매주 주말 일찍 모여 그날 있을 강의와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했다. 그 시간 덕분에 우리 부부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길 수 있었다. 당시 나는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진행하는 사회자로 섬겼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던 나는 부부의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강사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십일조를 포함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나누었다. 그 이후에는 미리 교부된 워크북을 통해서 서로의 재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획한 내용을 실천하도록 도왔다.

결혼예비학교는 단순한 사교모임이 아니다. 이혼과 가정폭력, 무관심 등으로 무너져가는 가정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요, 귀한 부르심이다.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와 민족이 살아난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78-3456

■ 온누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이두희 성도(양천공동체)

전도와 나 그리고 사명

전도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안내지를 받았다. 언젠가는 꼭 들어야 할 강의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도였기에 도전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전도를 미뤄 오던 지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가신 친정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자다가도 눈물이 났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기본전문을 암기하고 노방전도를 나간 첫날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런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심했다. “오늘 어땠냐”라고 묻는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의 교만이였다. 나는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단지 사람들의 거부하는 눈길과 말이 두렵고 싫었다.

그 다음 주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지식이 가득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연수가 짧은 내가 마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나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피해 다녔는지 모른다. 맞지도 않는 알팍한 지식과 아집으로 그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배우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삶으로 전해야 하는 관계전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전도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만 배우려 했던 나의 알팍한 믿음에 경고하셨다. 매일 하나님을 닮으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하루에), 1(한 영혼에게), 1(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를 외치며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로 가득한 전도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전도자를 피해 다닌 나를 끝까지 인내하셨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문의: 010-7322-4009

■ 일.하.세. 아카데미 간증



/ 이병돈 성도(북누리공동체)

직업과 사역의 목적

나는 2008년 8월 결혼했다. 변변찮은 직장 이 없었던 터라 결혼식의 거의 모든 비용을 아내가 부담했다. 당시 나는 매우 힘들었다. 부모님이 중한 질병으로 아프셨고 그로 인해 나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야 했었다. 낮에는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밤에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했다. 대학교 중퇴 학력으로 기술이나 경력 없이 나이만 들어갔다. 그러던 중에 아는 분의 소개로 보험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영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가족들도 “네가 무슨 영업을 하나?”며 응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했었다. 가족들의 말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기도 했지만 악착같이 버텼다. 지금은 보험일은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과 성향을 바꾸시려고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이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들에게 짜증과 잔소리를 하게 됐다.

왜 나에게에는 일에 대한 비전이나 재정을 허락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다. 그때마다 사단은 “어릴 적부터 네가 노력하지 않았잖아”, “인생 헛살았잖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등의 말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다. 그 두려움은 직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하고 있던 사역을 전부 내려놓고 예배만 참석하려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세. 아카데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직업과 사역을 허락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셨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셨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 해주실 것이다”(마 6:33).

■ 181기 온누리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조재철 성도(성북공동체)

순종과 사랑으로

몇 달 전 순 개편을 할 때 공동체 목사님께서 나를 순장으로 콜링하셨다. 그러나 나는 순을 말할 만큼 신앙지식이나 다른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 그날 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문득 요나가 떠올랐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자진해서 181기 온누리 순장학교에 참석하게 되었다.

순장학교 모든 강의가 유익했다. 미처 몰랐던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적, 선교, 이주민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김영환 장로님의 ‘순모임 인도법’ 강의는 정말 특별했다. 장로님의 간증이 와 닿았다. 나도 처음에는 장로님처럼 주일예배에 거의 나오지 않는 안개순원이었다.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술과 담배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순장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는 1박2일 아웃리치가 정말 좋았다. 처음 만난 순장님들을 알아가고, 섬기고, 이해하고, 자발적 지원이 넘쳐나는 시간이었다.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

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는 네팔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고, 함께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네팔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다음날 양주네팔교회 사모님으로부터 뜻밖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네팔 친구들이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 쉬지도 않고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셨다.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이해영 목사님, 순장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장로님과 간사님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했다고 인사하고 싶다.

순종과 사랑으로 순을 섬기고,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일조하는 순장이 될 것을 다짐한다.

장로칼럼

예수 닮은 ‘S브릿지공동체’



이기중 장로
(S브릿지공동체)

33~44세 미혼 청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인 S브릿지공동체가 생긴 지 벌써 7주년이 되었다. 나는 17년 동안 강론공동체를 섬기다 2년 전 S브릿지공동체로 오게 됐다.

그동안 성인공동체에 능력 있고 신실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다. 성인공동체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아내와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했다. 그리고 2016년 말 감미향 목사님께 S브릿지공동체를 섬겨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S브릿지공동체는 생긴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 공동체였고, 33~44세 미혼 청년들을 위한 예배부서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S브릿지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했다. 귀로 들려오는 부정적인 상황과 이유에 혹하지 않고 섬김에 더 큰 무게를 뒀다. 하지만 마음의 고향 같았던 성인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는 늘 혼란스러움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친인척과 연고지를 두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떠올렸다. 또한 몇 해 전 본의 아니게 갈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생활과 그 이후 받은 축복이 생각났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안주(安住)보다는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을 결정했다.

33~44세 지체들을 보면서 그 시절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 시기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 그들 옆에 누군가 어른으로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작은 울타리라도 되어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면 좋겠다.

S브릿지공동체를 섬긴지도 이제 1년 반이 됐다. 그 시간 동안 세대 간, 지체 간 이해 부족과 갈등이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희생과 노력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다.

그들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실패들과 장애들로 인해서 주춤거리기도 할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시 안정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 나는 그 소망이 자라서 꿈과 비전, 도전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들이 33~44세라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한다. S브릿지공동체의 주제 말씀(겔 37:5)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길 믿는다. 그들이 반드시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충성된 주의 청지기로 살아가리라 믿는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겔 37:5).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멘토로서 동행할 것이다.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팔을 펴서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지난 7년 동안 S브릿지공동체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앞으로 7년은 질적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지체들이 공동체에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예술과 하나님 나라



선우미숙 권사
(온누리 아트비전)

하나님은 미술가요, 조각가요, 예술가이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그 부분에서

주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다.

예술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다.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술가로 만든다. 하지만 마음은 상황에 따라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든다면 사람들도 그 작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창작활동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중세 시대 카타콤이 있었다. 카타콤은 지하 묘지이자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와 예배장소였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에 숨어들어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주님을 알렸다. 당시 미술은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인본주의가 미술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미술 간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술계 안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는 많은 기독교 미술인들이 교회 밖과 세상 속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 미술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미술인들은 이러한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방향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 역시 많은 방향의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신앙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적도 있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트비전’으로 인도하셨다.

아트비전은 세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아트비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와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팀원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도 한다. 나는 아트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됐다. 이러한 회복의 고백은 나만의 고백이 아니다. 잠시 붓을 내려놓고 방황했던 많은 분들이 아트비전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모여 ‘기독교미술선교회’를 만들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 그리스천 아트피스트’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스천 아트피스트에는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영락교회, 동안교회, 백석대학원, 샘미술선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그리스천 아트피스트는 기독교 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기독교 미술인들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미술을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미술인들은 말씀과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하고자 늘 고민하고 묵상한다. 예술인들이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한 일에 더 많은 그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신문지로 뒤처리하고 향문 건강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데를 사용한다. 흑백TV만으로도 즐거워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컬러TV를 넘어서서 4D 영상이 개발되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사진도 찍고, 결제도 한다. 스마트폰을 켜지 않으면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상용화될 기술 문화 중 하나가 인공지능(AI)이다. 이미 기계가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중교통, 하이패스 카드결제, 음식 주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서 로봇이 가정부와 비서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로봇에게 말로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한다. AI에게 “음악 좀 틀어줘”라고 명령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물 좀 가져다줘”라고 하면 물을 가져다준다. AI가 자녀를 돌보고 책을 읽어주면서 재우는 역할까지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생기는 현상 중 하나는 비대면 관계(Non-face-to-face Relationships) 증가이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 “아저씨 여기 어떻게 가나요?”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에게 묻는다. 점점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언택트(Un-tact) 기술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비대면 관계의 문제점은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의 상실이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주로 온라인에서 소통하다보니 얼굴을 맞대면 어색하다.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이 대화보다 편해서 만나서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데 말이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배송 받을 수 있는 O2O(Online to

인공지능 시대 삶의 기준

Offline)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다. 관계 맺는 법이 서툴 수밖에 없다. 비대면 관계의 AI시대를 사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제시한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롬 12:15).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AI 시대에 살더라도 만남에 힘쓰면서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함께 웃어주고,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울어줘야 한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려면 기쁨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슬픔이 있는 자리에도 찾아가야 한다. 교회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잘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야 한다. 세상이 더 삭막해지도록 놔둘 수 없다.

만남이 줄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캄테크(Calm-Tech)를 통해 알 수 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점원이 다가오면 불편해한다. 캄테크 기술은 손님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력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깊이 관찰해야지만 구현이 가능하다. 직접 만나서 필요를 파악하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삭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나는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짧고 평범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이다.

전문가 기고

오종규 법무사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돈을 벌고 소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물질만능주의(맘모니즘)와 소비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주의의 삶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무심코 소비주의의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돈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돈에 대한 가치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에 대한 가치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한다. 첫째, 돈을 버는 측면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성경을 인쇄하거나 이웃을 구제하는 일, 선교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역을 할 때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맘몬은 헌신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 맘몬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

둘째, 돈을 소비하는 측면이다. 지금은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하기보다 재정 형편과 관계없이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풍조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 맛있는 사람이라고 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는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 벌고 쓰는 것도 기독교인답게

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과 돈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요 4:24). 따라서 재정에 관한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러져야 한다.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마 6:19). 또한 돈이 가진 정사와 권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균형 잡힌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세미나를 6월 25일과 26일 오후 7시 20분 동빙고 근린공원에 있는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장’에서 개최한다.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

문의: 02-3215-3434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회의 역할

베르너 크레첼 목사
(전 PanKow교회 담임)

1945년은 독일에 게 파국적인 붕괴를 의미했다. 히틀러는 독일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독일을 서베를린을 수도로 한 서독(독일연방정부)과 동베를

린을 수도로 한 동독(독일민주공화국)으로 나누었다.

서독은 서쪽 승전국들의 지원을 받아 발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산주의적 위성국인 동독은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억압상태에서 1953년 6월 동독 괴뢰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당시 동독 괴뢰정부는 모스크바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의 붉은 군대는 탱크를 몰고와 노동자들의 반란을 깔아뭉가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엄격한 형을 선고 받았다. 수많은 동독 시민들이 개방된 도피 루트를 통해서 서독으로 피신했다. 그 사건으로 1961년까지 동독은 3백 만 명이나 되는 인력을 잃었다. 동독은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장벽과 가시철조망으로 나라를 봉쇄했다.

동독의 주요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인구의 100%가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속하던 시절과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선포하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있는 모습.

금지되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동독 인구의 약 20%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의 모든 교회에 타격을 가했다. 그때까지 서독의 부유한 교회들이 동독 교회들을 재정, 물질, 영적으로 지원해 왔다. 1950년대에는 서독의 많은 신학자들이 무신론에 맞서 싸우기 위해 동쪽으로 갔다. 이 중에는 현재 독일 수상 메르켈의 아버지 호르

스트 목사도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서독의 지원을 통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서독 교회의 재정 및 물질적 후원을 허락했다. 동독 교회에서 필요한 자금 중에서 약 50%가 서독 교회에서 들어왔다. 그 덕분에 동독 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독 교회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3개의 대학도 운영할 수 있었다.

교회는 중요한 사회적 중재자

당시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갈 수 없었지만 매년 수천 개의 서독 교회가 자매결연한 동독 교회를 방문했다. 이 접촉이 통일 이후 서로 다른 동독과 서독이 함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동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1996년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교회에 등을 돌렸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독의 무신론적 세계관과 경제구조가 삶을 더 좋게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동독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Stasi’라고 불리는 비밀경찰들의 엄청난 압박과 폭력적 힘 때문이다. 그 엄청난 긴장 속에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 교회 지붕 밑으로 야당 세력이 모였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평화를 주장했다. 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요구하신 것과 일치했다.

독일 교회는 중요한 사회적 중재역할을 수행했다. 조국을 떠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친구를 잃고 조국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베르너 크레첼 목사는 독일 통일 장면을 한복판에서 목도한 동독 목회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동독의 수도’의 원탁회의 중재자(시장 역할)로 활동하기도 했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김포M센터 토요 활동 교사 모집

시간: 유치부(10:30~12:30), 초등 2~3학년

(14:00~16:00)

활동: 유치부(성경 이야기 및 찬양, 예배),

초등 2~3학년(공부와 성경읽기)

문의: 민경윤 선교사(010-2997-4347)

김포M센터 다문화 아이들 위한 기

독교 책 기증 요청

모집: 만화성경, 기독교 내용의 동화책

문의: 민경윤 선교사(010-2997-4347)

CMN의료선교 추석 캄보디아아웃리치

일시: 9월 20일~27일

사역: 의료사역(비용 99만원)

문의: 김경아 간사(010-8983-3520)

생명의살들러스팀 채용 공고

모집: 편집 디자이너

자격: 인디자인 사용 가능자

마감: 6월 30일(토)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샘물중고등학교, 다샘물학교 교직원 모집

샘물중고등학교: 특수교사, 회계, 후원홍보

다샘물학교: 회계, 파트교사(음악, 미술, 체

육, 중등 영어)

마감: 7월 2일(월), www.smca.or.kr 참고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수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CGNTV

한국순례기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한국교회의 선조들
그들의 흔적을 돌아보며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광주 최흥종 목사 편 6월 19일 첫 방송

예수님을 만나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최흥종 목사.
광주의 첫 기독교인이 되어 나환자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일평생 하나님과 이웃, 나라사랑의 삶을 살았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출연 배우 서태화, 사진작가 이요셉,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